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25

JCCT 2024-5-5

러-우 전쟁 이후 NATO의 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적 함의 고찰

Examination of NATO's Strategic Changes After the Russia-Ukraine War and Korea's Security Strategic Implications

김현진*, 배일수**

Kim Hyun Jin*, Bae Il Soo**

요약 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동안 유지해오던 평화유지 전략에서 탈피하고 다자안보협의체 강화, 전략적 안정성 추구, 군비 확충, 협력안보 및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NATO의 전략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NATO와 협력과 연대를 기회로 삼아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NATO, 인도-태평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안보

Abstract After the Russia-Ukraine War, NATO broke away from the peacekeeping strategy that it had maintained and declared that it would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ve body, pursue strategic stability, expand armaments, cooperate security, and strengthen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Changes in NATO's strateg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Korea's security environment. Only by clearly analyzing this and establish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respond to it can the threat be suppressed and national interests protected. NATO designates China and Russia as threats. By usi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 NATO as an opportunity, we will be able to strengthen security cooperation and alliances, develop and expand the defense industry market, and exp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Ukraine reconstruction project.

Key words : NATO, Indo-Pacific, The Russia-Ukraine War, Cooperate Security

1. 서론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쟁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 부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대규모 군사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NATO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ATO는 1949년 4월 창설된 이래 70년 넘는 기간 동안 북대서양 집단방위의 핵심이었다. 최초 설립 목적은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발생한 냉전체제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으나, 소련의 해체로 인한 냉전의 종

*정회원, 육군대학 지휘참모과정 (제1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5,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deransky@gmail.com

Dept. of Military Science, R.O.K. Army College, Korea

식 이후에 테러리즘, 에너지 위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다양한 아젠다를 고려하여 지속 유지되고 있다.

러-우 전쟁 이전은 탈냉전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군비감축과 분열주의가 발생했으나 러-우 전쟁 이후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파괴와 안보의 위기를 느낀 NATO는 규칙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및 다자안보 협의체 강화를 지향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변화된 NATO의 안보전략에 따라 세계정세는 이에 맞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ATO 소속 국가의 국방비 증가,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 확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 강화는 한국에게 방산시장 확대 기회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NATO와 협력 증대라는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양안 갈등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소형화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연루 가능성과 한반도 국지도발의 위험 증가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 전쟁 이후 NATO의 전략 변화와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전략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결론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 간 군사도발 대비, 소다자안보협력체제와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 확대를 제시하였다.

II. 러-우 전쟁과

NATO의 전략 변화 고찰

러-우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분열 양상을 보였던 미국과 유럽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22년 NATO 정상회의 간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러-우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며 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규칙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및 다자안보협의체 강화를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NATO 소속 국가의 전략 변화

탈냉전 이후 NATO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 지속해서 군비를 감축해왔다. 하지만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 위협을 느낀 일부 NATO 국가는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폴란드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재무장 필요성을 지속 논의하였다. 이에 독일 국방부에서는 1,000억 유로(원화 약 133조 원)의 특별기금을 마련해 그동안 미진했던 독일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독일의 1년 국방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기로 했다[1].

폴란드는 과거 러시아, 독일을 비롯한 인접국들에 의해 수많은 침공과 강제 병합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러-우 전쟁을 통해 폴란드 또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에 대해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이 포함된 최대 450억 달러 규모로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 증강될 전망이다[2].

독일과 폴란드 외에도 발트 3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2.2 NATO의 전략 변화

NATO는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 및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였다. NATO 창설 이후 최초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파트너국 지도자들이 참가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신전략개념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 임무로 ‘① 억제·방어, ② 위기 예방·관리, ③ 협력안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NATO의 안보영역을 유럽-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집단안보의 범위를 확대를 공식화했다[3].

냉전 종식 이후 사라졌던 공동의 적(敵) 개념이 러시

아와 중국이라는 적대세력으로 구체화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국가로 NATO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도전 요소로 명시되었다.

NATO는 유럽-대서양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동맹의 범위를 확장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번 2022년 NATO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국가들을 최초로 초청하였으며,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냉전적 국제질서 및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 상호의존성을 중시했던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진영 간 이해관계를 따르고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더욱 구조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Viinius)에서 개최한 NATO 정상회의는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NATO는 한국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함으로써 NATO와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지정학적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4]. NATO의 핵심 임무와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NATO의 동진정책에 따라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NATO의 임무와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 이를 중국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이 양안에서 다양한 도발을 획책하며 대만침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양안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2년 8월, 25년 만에 펠로시 美 하원 의장의 동북아 순방과 대만방문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3일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양안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첨예한 대립 및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NATO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위협을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전략개념은 한국의 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한국에 미치는 안보전략적 함의

러-우 전쟁을 목도하며 NATO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협력 증대, 안보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국가 안보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국방,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한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NATO 전략변화에 따른 안보전략적 이슈를 선정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지속적인 전략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NATO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 확대와 한국-우크라이나 협력 강화, 국방비 증가 및 방산시장 확대는 한국에 연대 및 협력 강화와 소다자 안보협력 체제 및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표 1. NATO의 전략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Table 1. NATO's strategic change and impact on Korea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 확대	➔	한-NATO 연대 및 협력 강화
한국-우크라이나 협력 강화		소다자 안보협력 체제 및 동맹 강화
국방비 증가 및 방산시장 확대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 증대

3.1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

중국은 2022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만(Taiwan)에 대한 무력통일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2024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친미·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승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러-우 전쟁과 관련해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에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증대되는 가운데 NATO의 임무·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양안갈등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중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과감히 대만과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한국과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5].

따라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한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3.2 소다자안보협력체제와 동맹 강화

현재 한국이 맺고 있는 가장 굳건한 동맹은 한미동맹이다. 1953년 7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축이며, 2023년 8월 출범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UN에 소속되어 2024년 1월 1일부로 UN 비상임이사국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6].

한국과 동북아 지역 외에 대화상대 국가 자격으로 소속되어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994년 출범한 이후 아태지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공식적 다자안보대화체로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ARF는 구조적 제한점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또한 미지수이다[7].

지정학적 관개로 구성된 NATO와 비교하여 동북아 안보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지속 논의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 주권 관련 안보 문제,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8].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10개국으로 결성된 민주주의 10개국(D-10)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술 연합체인 T-12 등 기존의 군사적 안보협의체 대신 소다자주의적 안보협력체제를 통해 더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NATO의 방침에 호응하여 NATO와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다[9].

3.3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러-우 전쟁에 따른 NATO 안보위기는 한편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NATO 및 주변 국가들의 재무장 노력은 방산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러-우 전쟁으로 향후 10년(2023~2032)간 글로벌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 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이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2].

미국에 이어 한국도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수출 주력 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다른 우방국 대비 신속한 납기 능력,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이전 및 산업협력(질충교육)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기수출로 세계 9위 수준을 달성했다. 국방부는 2025년 방산수출이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방산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 주도로 방산 수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2].

3.4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회담 직후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지원을 위한 공여 협정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은 NATO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NATO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국가로 선정하여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위에 서술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교류를 확대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면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10].

IV. 결론

변화된 NATO의 신전략개념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적 발전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은 영향력 확대와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만침공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공백 및 북한의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소다자안보협력

체제와 동맹 강화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NATO 및 다른 다자협력기구와 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셋째,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은 한국 방산시장 확대와 막대한 국가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이다. NATO 및 우크라이나와 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러-우 전쟁 종결 이후 예정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이익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

제시된 연구내용은 러-우 전쟁의 영향력과 이에 따른 NATO 전략 개념 변화를 고려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되거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속 변화할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노력과 안보 전략이 수립된다면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 평화 유지와 더불어 한국의 국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략적 자율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of ARF with Regard to the Security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research, no. 139, pp. 473-504, 2015.

- [8] I. H Park, "Security and Region: Conceptual Foundation of Security and the Possibility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National Strategy, vol. 16, no. 4, pp. 33-62, 2010.
- [9] Benedict E. DeDominicis, "US, China and the Russo-Ukraine War: The Conditions for Generating a Mutually Perceived Hurting Stalemate and Consequent Ceasefire In Moscow and Kyiv",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11 No.4 177-191, 2023, DOI: https://doi.org/10.17703/IJ_ACT.2023.11.4.177
- [10] H. G. Kim, "Ukraine War and Reconstruction Project," KIET, vol. 300, pp. 65-80, 2023.

References

- [1] H. J. Shin, "A Study on the Process and Prospects of Bundeswehr's Rearmament: Focusing on NATO related Response to Military Threat from Russia," Defense policy research, vol. 39, no. 1, pp. 145-178, 2023.
- [2] W. J. Jang,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Market After the Ukraine War," KIET, vol. 294, pp. 7-23, 2023.
- [3] K. K. Lee and Hyeon-Ju Seol,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s in the NATO Strategic Concept,"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2, pp. 107-148, 2023.
- [4] H. W. Jeon, "2023 NATO Summit and Korea-NATO Cooperation: Focusing on Korea-NATO ITPP,"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2023.
- [5] M. S. Jung, "Innovation in how to combat the Army's military strategy for future combat victory", KoreaScience, Vol. 6, No. 3, pp.105-109, 2020,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3.105>
- [6] B. G. Park, "ROK-US Alliance and NATO: Change of Identity and Future of Allianc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8, no. 4, pp. 295-314, 2020.
- [7] H. J. Lee, "Analysis on the Neutrality Position